



양계업계 뉴스초점

홍보팀

가금티푸스 생균백신 야외시험 실시 10월부터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가금티푸스에 대한 생균백신 1차 접종결과가 지난 8일 발표됨에 따라 10월부터는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야외확대시험이 실시된다. 9개농장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 야외계군에 대한 접종 결과에서는 57.9%~87.5%의 방어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야외시험은 금년 10월부터 6주령(1회 접종) 전후의 산란계 병아리를 대상으로 총 16주간(2회 접종) 실시되며, 접종 희망농장은 본회에 신청을 통해 선정이 된다.

계란 중량·품질 등급 기준(안) 왕란등급 신설 등 새롭게 보완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계란중량·품질 등급 기준과 관련하여 이 기준(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산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새로운 계획(안)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에서 내놓은 수정(안)을 보면 왕란 69g이상, 특란 63-69g, 대란 57-63g, 중란 51-57g, 소란 45-51g, 경란 45g 미만으로 현재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중량 등급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특란 등급을 세분화하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왕란 등급을 새로 설정하여 유통상의 혼선을 방지키로 함은 물론 불균일한 등급간의 중량 간격을 6g으로 균일화 한 것이 특징이다. 농림부의 검토를 거쳐 수정(안)이 발표되면 공청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생산자들은 현재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계란 등급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합일점을 찾는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계란 수급안정 기반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연구 착수**

금년부터 2개년간에 걸쳐 계란수급안정 기반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가 착수 된다.

신구전문대학 최연호(자원동물산업과) 교수팀을 연구진으로 추진될 이번 사업은 총연구비 1억9천만원(1, 2년차 각각 9,500만원)으로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양계정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계란관측정보 시스템 개발 등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농장관리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사육농가의 관리체제 확립에 도움을 주게 되며, 계란 생산 및 가격예측정보의 활용으로 국내 계란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산 가금육 수출 작업장 확대요청 관련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엄격적용 등 건의**

본회는 최근 중국산 가금육 수출이 재개되어 수입이 본격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가금육 수출을 늘리기 위해 작업장 승인 요청이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음과 관련하여, 수입 닭고기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엄격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본회는 정부가 중국산 가금육 작업장 점검시 선진국의 위생조건 기준과 우리 정부의 중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을 엄격히 적용해줄 것과 중국산의 국내 반입시 전 가금육에 대한 검역의 확대시행과 정밀검사 기간을

질병유입의 위험성에 대한 안전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연장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육계가격 단일시세 발표
유통구조 개선효과 기대**

그 동안 육계가격이 일부 유통업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유통가격을 조사, 발표시 본회와 계육협회의 발표가격이 다소 차이를 보이면서, 가격 하락시 이중시세가 형성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본회, 계육협회, 유통업체 관계자들이 모여 육계값을 단일시세로 오전에 발표키로 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유통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정확한 시세를 신속히 알 수 있어 생산자들과 유통업자들의 투명한 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백세미 생산농가 ND발생
종계업계 백세미 생산 부당성 강력 대응키로**

F계열사 납품농가(백세미 생산농가)에서의 ND발생건과 관련하여 종계업계에서는 정부에 '국내 삼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해결노력이 없어 ND 등 각종 질병이 백세미의 무분별한 사육으로 인해 질병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해결책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키로 하였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백세미에 대한 삼계산업의 정립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지급 등 질병퇴치를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양계**